사무엘하 23. ‘다윗’의 마지막 말과 그의 용사들 (삼하 23 장 1-39 절)

들어가기

오늘 살펴볼 23 장은 지난 시간 살펴본 22 장과는 엄청난 시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22 장은 ‘다윗’ 왕정의 초기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노래한 것이라면, 오늘 내용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영적 치유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인생 말미에 고백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장은 부록처럼 그런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고백과 예언 (1-7 절)

1) ‘다윗’이 이 말씀을 전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 1 절은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 이라고 기록!

-> 곧 ‘다윗’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전한 말로 보아야 할 것!

-> 이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있음!

☆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다윗’처럼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 4 가지로 소개하였습니다.

☆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

☆ 그럼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였음!

☆ 우리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어봅시다!

▪ 특별히 이때 2 절을 주목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전하는 이 마지막 말은, ‘여호와와 영’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의 입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것!!

->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마무리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얻었음을 발견하게 됨!

☆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루 하루를 살며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은혜를 구해봅시다!

3)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전해 준 마지막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7 절)

- ①.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함. (3 절 a.)
 - > ‘반석’은 ‘불편’을 의미! -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지적.
 - > 따라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지적하며 그의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②.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서 전하신 두 가지 말씀을 전함.

▪ 첫째 말씀: 3b -4 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 우선 여기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1 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말씀으로 해석!

☆ 특별히 4 절 말씀이 이것을 더욱 더 확고하게 확인시켜 줌!

-> 바로 ‘돋는 해의 아침 빛, 비 배린 후의 광선, 새로 나오는 풀’ 등은 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킨 말씀들!

☆ 곧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다윗’의 인생 말미에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 이때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음!

-> 5 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건축 소원을 막으신 뒤,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음. (삼하 7:12-16)

->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

☆ 아무튼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장차 오실 세상의 빛 되신 메시아에 대해 고백하고 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

▪ 둘째 말씀: 6-7 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 여기서 ‘사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을 가리킨 말로 해석.

-> 이는 곧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한 예언.

☆ 개인적 소견

이렇게 오래 전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이루어질 멸망을 깨닫고 예언하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 하나님께서 붙이신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들 (8-39 절) -> 총 4 단계로 본문은 구성됨

1) ‘다윗’과 함께한 3 명의 용사들과 저들의 공적들을 소개! (8-12 절)

- ①.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 (다른 이름 = 에센 사람 아디노) -> 군지휘관의 두목
-> 단번에 팔백 명을 죽임
- ②.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침
- ③.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저들을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침!

▪ 주목할 것! ->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 ☆ 곧 저들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하나님은 저들이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데 쓰임 받는 용사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 ☆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데 부름 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 ☆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은 헛되이 쓰거나 썩히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3 용사들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 (13-17 절)

- ☆ 저들은 ‘다윗’이 목말라함을 보고 블레셋 수중에 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왔음!
-> 이것은 다윗을 향한 완전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에서 나온 행동이요 헌신이었음!
- ☆ 이런 세 용사의 헌신은 단순히 인간 ‘다윗’을 향한 충성이었다기 보다는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은 사람을 향한 헌신이었고, 이는 곧 하나님께 바친 희생이었고 충성이었음!
(역대상 12 장 18-23 절)
- ☆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자기 희생적인 열심과 충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임하며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 이때 ‘다윗’은 세 용사들이 길러온 물을 ‘저들의 피’라 생각하여 자신이 마시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음!
-> 히브리인들에게 피는 생명을 상징!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려야만 했음!

☆ 개인적인 소견

당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저들의 피로 생각해 귀하게 여겼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피를 더욱 더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3) ‘다윗’과 함께 한 또 다른 3명의 용사들과 저들의 공적들을 소개 (18-23 절)

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 > 세 사람의 우두머리 /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
- > 자신의 창으로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음!
- >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음!!**

②.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 >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 > 3 가지 예!
 -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돌을 죽임 -> (삼하 8:2, ‘다윗’이 모압을 칠 때의 사건)
 - 눈이 올 때, 곧 겨울에 사자 굴에 들어가 사자 한 마리를 쳐서 죽임
 - 막대기를 가지고 창을 든 장대한 애굽 사람과 싸워 그의 창으로 그를 죽임!
- > 30 명의 용사들보다는 존귀한 이름을 얻었으나, **그도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함!**
- > ‘다윗’은 그를 시위대장으로 삼음!

③. 이름 없음!

- ☆ 주목할 것! -> 이들은 다 첫 세 용사들보다는 그 용맹이나 능력이 모자랐다는 취급을 ‘다윗’에게 받았지만, 이에 불평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 ☆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4) 그 외 30 명의 용사들의 명단 (24-39 절)

- ☆ ‘다윗’에게는 위에 소개된 지도자급인 6 명의 용사들 이외에도 30 명의 강한 용사가 있었음!
- ☆ 본문은 저들의 이름을 각각 소개함!
 - > 그런데 숫자들 세어보면 30 명이 넘는다는 것!
 - (참고로 역대상 11 장에 소개된 용사들의 숫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음!)
 - > 그 이유는 30 명 중에 누군가가 죽거나 개인적 문제로 빠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우게 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

- 주목할 것은 이 용사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다양하게 선출되었고, 심지어는 이방인 출신(예: 35 절, 아랍 사람 ‘바아래’, 37 절, 암몬 사람 ‘셀렉’)들도 있었다는 것!!!

✧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에는 출신, 성격, 외모,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오늘 등장한 모든 용사들은 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지키는 일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